

화순 도곡중양초, 학생들의 '나도 코딩 전문가!' 도전기

소프트웨어 교육 통해 디지털리터러시·컴퓨팅 사고력 기르기 센서 보드·다양한 로봇 활동·코블록스 등 다양한 SW 체험

화순 도곡중양초등학교(교장 김경순)는 2020학년도 학교 특색교육의 일환으로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및 컴퓨팅 사고력을 기르기 노력하였다.

2020학년도에 전교생이 소프트웨어 동아리에 참여하여 센서 보드, 다양한 로봇 활동, 증강 현실, 마지 큐브 꾸미기 활동, VR, AR 체험, 코블록스 등 다양한 SW 체험을 하였으며, 3-6학년은 CDT(Coding creative Development Test)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엔트리로 1년 동안 열심히 학습하였다.

코로나 예방을 위하여 지난해 12월 15일 학교에서 3-6학년 25명의 학생들이 CDT 자격증

2급과 3급에 도전하였다.

학생들은 1년 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발휘하여 코딩 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인정받기 위하여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참여하여 25명의 학생 중 2급 2명, 3급 18명의 학생이 CDT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6학년 정OO 학생은 "1년 동안 열심히 로봇과 함께하는 소프트웨어 동아리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코딩 자격증을 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에 가서도 더 높은 급수의 자격증에 도전하고 싶어요."라고 하였고, 3학년 문OO 학생은 "올해 도곡중양초등학교에 전학을 왔는데 다양한 로봇들과도 친해질 수 있었고, 나만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서 다양한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주고 싶어요." 하연정 강사는 "도곡중양초등학교 학생들이 SW교육에 대한 재능이 많고, 코딩교육(엔트리)을 너무 즐거워하며 참여하는 모습이 너무 대견했어요. 앞으로도 학생들이 끝없이 도전을 계속하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김경순 교장은 "우리 아이들은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사회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학교에서부터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화 및 사회의 변화에 발맞추어 가는 교육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곡중양초등학교에서는 지속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을 학교 특색교육으로 추진하여 미래 사회에 준비된 인재를 기르고, 다가올 미래에 자신감을 갖고 생활할 수 있는 학생들을 기르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도곡중양초등학교(교장 김경순)는 2021학년도에도 소프트웨어 교육(피지컬 컴퓨팅 등



아래, CDT 자격증 도전반)을 특색교육으로 추진하여 학생들이 코딩 전문가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화순=박순철기자



나주중, 자립능력 향상 '요리만들기 프로그램'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요리Cook 조리Cook'

나주중학교(교장 정태안)는 부모님의 역할이 취약한 가정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립능력을 향상해주고 균형 잡힌 식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프로그램으로 '요리Cook 조리Cook'을 운영하였다고 전했다.

겨울방학동안 2월 1일부터 5일까지 운영된 '요리Cook 조리Cook'에는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조손가정을 포함한 20명의 학생과 함께 진행하였다. 전문 요리 강사를 초빙하여 학생들이 직접 음식 재료들을 다듬고 만들면서 집에서 먹을 수 있는 기본 반찬을 만들 수 있도록 연습을 해보았다.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기본 밑반찬(견과류 멸치볶음, 계란찜, 버섯장조림, 소시지 야채볶음)과 국물류 음식(된장국, 콩나물국) 그리고 특별식(미트볼 스파게티, 치킨가라아게)을 요리해 보면서 스스로 집에서 도전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만족도 조사 결과 프로그램 참여 전보다 요리에 관한 관심이 생겼다(100%). 요리에 대한 자신감이 더 생겼다.(94%)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즐거웠다.(100%) 스스로 생각할 때 적극적이었다.(100%) 등 참여 학생들도 매우 만족한 것을 볼 수 있었다. 학생들이 좋아하는 메뉴를 바탕으로 진행해서 적극 참여할 수 있었고 만들었던 음식을 집에 가지고 가서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며 성취감을 느끼고 자존감 향상에 도움을 주었다.

정태안 교장은 "학생들의 자립능력을 키우고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올바르게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하며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청암대, 혁신지원사업 성과 모니터링 UCC & 체험수기 공모전 시상

혁신지원사업 프로그램 참여 경험 있는 재학생 대상

청암대학교(총장 서형원)는 최근 '혁신지원사업 성과 모니터링 UCC와 체험수기 공모전 시상식'을 청암관 1층 회의실에서 가졌다.

이번 공모전은 2019~2020년 혁신지원사업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있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청암+혁신'을 주제로 한 UCC와 혁신지원사업 프로그램 체험 수기를 모집하였다.

이 날 시상식에 참석한 서형원 총장은 "학생을 위해 모두 함께 임하는 사업인 혁신지원사업의 의미대로, 우리 대학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그 모습을 널리 확산시키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 이와 같은 모습이 앞으로의 청암인들에게 큰 귀감이 될 것이

다."라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이강두 부총장은 "공모전의 의미대로 우리 대학 인재들의 능력을 널리 공개하여 모집할 수 있는 자리가 더욱 많아지고, 이로 인해 더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0년 혁신지원사업 UCC 공모전은 교육혁신의 학습동아리 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던 과정을 알차게 UCC로 담아낸 간호학과 4학년 임하영, 김시원 팀이 금상을 수상했다.

은상은 기타혁신 봉사 프로그램, 외국어 학습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회복지과 2학년

이예리, 동상은 산학협력혁신의 경력마일리지 프로그램 참여와 창업 동아리 취재 경험을 살린 간호학과 4학년 강민지 학생이 수상하였다.

체험수기 공모전은 산학협력혁신의 AI 모의면접 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작성한 간호학과 4학년 박신실이 금상을, 기타혁신의 해외 현장실습 경험을 담은 간호학과 4학년 우주연, 이현진 팀이 은상을, 기타혁신의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하는 외국어 수업의 체험수기를 작성한 치위생과 2학년 김경서와 교육혁신의 간호 전공 동아리(나이스) 참여 경험을 작성한 간호학과 3학년 김지현 학생이 동상을 수상하였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기자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적성계발 꿈 탐험' 참여 학교 모집

진로계발 탐색 위한 자유학년제 연계프로그램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이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021년도 자유학년제 연계프로그램 '적성계발 꿈 탐험'에 참여할 12개 학교를 오는 16~26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적성계발 꿈 탐험'은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학생 참여형 수업으로 진행된다.

해당 프로그램은 일정에 따라 참여 학교

별로 강사파견수업 3회, 기관방문수업 1회 등 총 4회 과정으로 운영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 및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 '적성계발 꿈 탐험'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년도에 참여했던 일선 학교의 의견을 수렴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모듈활동 및 체육시설 이용 제한으로 만족도가 저조한 일부 강좌를 재정비했다.

'적성계발 꿈 탐험' 프로그램은 ▲드론교실 ▲캘리그래피교실 ▲도예교실 ▲뷰티네일아트 ▲DIY 미니어처 ▲원예교실 ▲창의수학&보드게임 ▲팝아트교실 등 총 8개의 특색 있는 강좌로 구성된다.

참가를 원하는 학교는 오는 26일까지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전자문서로 제출하면 된다.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은 오는 3월 중 최종 선정된 학교에 프로그램 참여 확정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조인호기자

